

풍남문 종소리, 광복절에 다시 울려 퍼져

전주시, 72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 국가·전북도민 무사안녕 기원

풍남문 종각 기둥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 잠시 종소리를 듣지 못했던 완산 종이 광복절을 맞아 다시 울려 퍼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풍남문 타종행사가 1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남문 종각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33번의 타종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국가와 전북도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발견된 서편 종각의 기둥 뒤틀림 현상 등 안전문제로 사용을 중지했던 풍남문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왔으며,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타종식을 거행했다.

종각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완산종은 매년 3.1절과 광복절, 제야행사 등 매년 세 차례 울려 퍼지게 된다.

풍남문은 성문 위에 전후 2열로 4개씩 세운 누각의 1층 기둥이 2층의 변주로 연결되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국가 지정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인재용기자



다시 울려 퍼진 풍남문 종소리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풍남문 타종행사가 1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남문 종각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33번의 타종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국가와 전북도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싱가포르 원점마음센터 ‘마음과 마음 챙김’ 공동심포지엄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싱가포르 원점마음센터(Da Connectors Growth Centre)와 함께 싱가포르 대표 사찰인 불야사(佛牙寺)에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마음과 마음 챙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공부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음공부에 관심 있는 일반인 200여 명과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원점마음센터의 덩롱(Ding Long) 스님과 마음인문학연구소장 고시용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프리 포(Jeffrey Po)의 '건강한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목포지향적 마음 챙김 명상 방법', 장진영(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의 '마음 챙김의 일상적 수행: 심심풀이 M3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백현기(마

음인문학연구소) 교수의 '구글맵을 이용한 전자문화지도 어플, 재클린 령(Jacqueline Leong)의 '마음 챙김 어렵지 않다'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각 발표 중간에는 명상 지도사 에린 리(Erin Lee)와 '마음 챙김 명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포지엄 후반부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으로 구성된 중창단 'The Music Tree'의 노래 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과 발표자들이 개인의 일상적 수행부터 마음 챙김과 전자문화지도 빅데이터와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마음 챙김의 조화, 심심풀이 M3 캘리그래피와 마음 챙김 수행의 관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눠 호응을 얻었다. /익산=정왕원기자

진학상담교사들 “수능 4과목 절대평가안, 개악의 전형”

진로·진학 상담 교사들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시안과 관련해 “절대평가를 일부가 아닌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개편안에서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1안이다.

2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수능 전 과목(7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15일 “수능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 절대평가에 비해 봤을 때 전 과목으로 확대하더라도 변별력 확보와 재수생의 재도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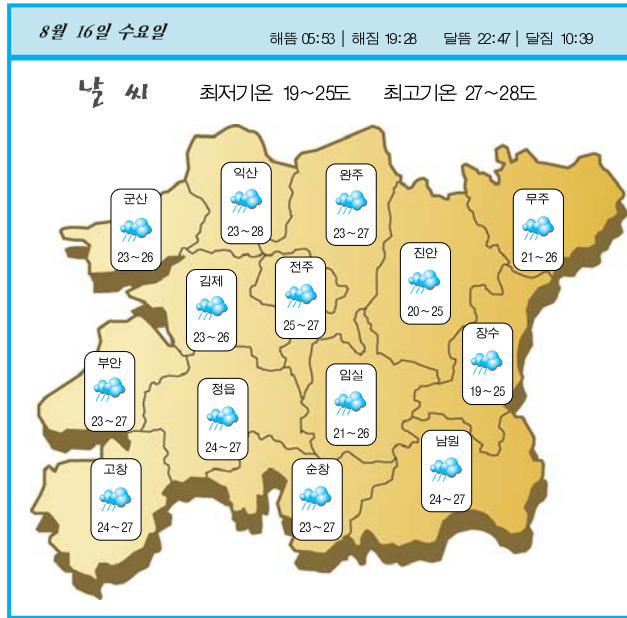
이들은 개편안이 지금의 수능과 차

이가 없는 ‘개악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대평가 과목인 수학과 국어로 출제 현상이 매우 왜곡된 형태로 발생할 것”이라며 “7과목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8과목과 마찬가지로 학습 부담만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안이 선택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2009년 교육과정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또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내신 9등급제는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 부담과 경쟁으로 과정 중심 교육을 어렵게 하고 고교 학점제 등 새 정부 교육정책의 성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익산고용지청 일반계 고교 3학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고용노동부 산하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상은 졸업을 앞 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이번 훈련과정은 진학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훈련과정은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익산지역은 보석디자인·귀금속 가공 양성과정, 가스설비 시공양성과정, 건설기계운전, 헤어미용 등 총 4개 과정이 운영된다. 훈련비는 전액무료이며 훈련장려금

은 월 최대 21만6000원이 지원된다. 일반고 재학생은 훈련을 받는 동안 학교 출석도 인정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훈련을 참여할 경우 월 최대 3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취업성공패키지팀)를 방문해 훈련상담 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익산고용지청 관계자는 “일반고 3학년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본인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참가자 모집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어린이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9월 9일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문화행사는 ‘창의 바다에 빠진 로봇’이라는 주제로 그림책과 떠나는 창의로봇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18일에는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있는 세대 공감’을 주제로 그림책을 통해 세대 간 공감을 끌어내는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독서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회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8일부터 방문 또는 전화(063-228-5688)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혜영 개골개골어린이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좀 더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문화시팅방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가온초등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